

‘시험 만능주의’ 1000년 간 바뀌지 않았다

시험국민의 탄생

이경숙 지음

상상해보라. 고령이나 조선시대에 살던 이가 불속 타 임머신을 타고 현대에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절대권력을 가진 왕 대신 대통령을 투표로 뽑는 정치체제나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과학문명이 정신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 시험 제도만큼은 동질감을 느낄 것이다. 과거를 준비하는 1000년 전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공시족’이 25만여명에 달하는 현재나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평가하는 근본적 바탕인 ‘시험 만능주의’는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출간된 ‘시험국민의 탄생’은 고려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관통해온 ‘시험’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다. 저자인 이경숙 경북대 강사는 ‘일제시대 시험의 사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시험과 인간에 대한 기록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련 글을 쓰고 있다.

이 책은 ▲권력이 설계한 인간의 역사 ▲사열화와 배제, 그리고 저항 ▲쉬운 통제를 꿈꾸다, 교육을 대체한 시험 ▲전부를 걸어 출세하라 ▲해방적 평가와 평등사회 등 5개 주제로 나눠 한국인의 삶을 좌우하는 ‘시험’의 사회적 기능과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



시험은 한국인에게 희망의 대상이거나 좌절의 대상이다.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이면서 능력대신 성적만으로 서열화하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 대학 수험능력시험장 입구에서 후배들 응원을 받는 수험생들. <광주일보DB>

저자는 ‘들어가며’에서 “시험은 한 개인의 인생 곡절과 현재 삶을 설명하는 절대적 장치”라면서 “이 책은 평가 무풍지대와 평가 쓰나미 지대로 양분된 평가 양극과 사회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논의이다. 그럼으로써 이 책은 개인이 좌절한 역사가 아니라 사회의 희망을 발견하는 단초를 찾고자 한다”고 집필의도를 밝힌다.

‘시험’을 보는 시각은 이중적이다. 불공정한 세상에서 ‘개천의 용’이 날 수 있는 신분상승의 합법적 사다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인간능력을 한 차례의 시험성적으로만 평가해 서열화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 때(958년) 도입된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될 정도로 1000년 가까운 생명력을 가졌다. 단순한 관리 등용문이 아니라 ‘강력한 정신적 통치장치’였다. 조선 중종 때 급제한 반석평은 천일 출신으로 요즘으로 치면 법무장관 격인 형조판서에 오른 인물이다. 조선시대에 신분이 낮은 급제자 합격자 수는 전체의 35.7%를 차지했다.

저자는 한국사회의 지배해온 과거제도와 고시제도, 입시제도를 하나씩 살펴볼 때 ‘능력주의의 합법적 사다리’를 비추는 동시에 인간능력을 한 차례의 시험성적으로만 평가해 서열화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능으로 천거해야 하며, 벼슬은 높은 낮건 간에 반드시 능력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자는 ‘시험없는 학교와 사회’를 상상한다. 그래서 “시험점수로 인간을 서열화하고, 등급화하여 모든 것들을 부여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싸움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보다 지역, 지역보다 일의 현장에 평가의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과거와 현재의 ‘시험’의 발전과 퇴보를 살펴면서 ‘시험’의 발전과 퇴보를 살펴면서 ‘시험’의 발전을 수행하게 한다.

<북하우스·1만5000원>
<문학과지성사·8000원>
<푸른 역사·2만5000원>
<송기동지사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왜 나쁜 역사는 반복되는가=우리에겐 당연한 갈등과 폭력과 혼란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는 책. 중동에서의 내전이나 국가 간 전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병합 등 상실한 옛 소련 영토를 회복하려는 군사행동, 각 나라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등을 주제로 잡아 오늘날 세계와 시대에 역사를 이용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들을 짚어본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변형을 통해 반복되고 있음을 살핀다. <산치림·1만5000원>



▲당신이라는 바람이 내게로 불어왔다=조건 없는 사랑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고민정 아나운서, 조기영 시인 부부가 3년의 준비 기간 끝에 시처럼 아름다운 언어로 써내려간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았다. 고민정은 사람의 눈부신 기억들, 언론인으로서의 고민, 시인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시인은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파스란 눈길로 사랑과 세상의 지향점을 들려준다.

▲그 숲에서 당신을 만났는가=신예배 시인의 네번째 시집. 그동안 여성으로서의 타자화된 신체에 포착하며, 환상적이고 기이한 무정형의 시 세계를 선보여온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 자신의 시 세계 속으로 독자들을 적극 끌어들이었다. 시인은 ‘물랑’이라는 시어를 활용하며 그간 유지해왔던 ‘다른 몸’ ‘다른 존재’를 구현한다. 시집의 각 부 앞에는 ‘물랑’이라는 시를 나눠 배치함으로써 책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여행의 취향=고나의 여행에세이. 끊임없이 떠나고 머무르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여행의 취향’에 대해 기록하며 성장한 스토리를 담았다. 어느 순간 여행은 ‘일상을 벗어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한 순간이 되고, 떠나지 못할 때에는 일상을 여행으로 꾸밀 줄도 알게 된다. 일상에서 여행을 느끼고 여행에서 일상을 찾아내며 나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더블·엔·1만5000원>

▲안 먹는 아이 잘 먹는 아이=유독 먹는 문제로 엄마와 갈등하는 아이들이 있다. 장소가 바뀌거나 맛이 조금만 달라도 안 먹으려 하고, 아픈 것도 아는데 입맛이 없다고 안 먹고, 새로운 음식은 먹으려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음식을 삼키지 않고 오물 거리고만 있고...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를 위해 아이의 식행동 문제를 이유와 원인부터 찾아내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어떻게 육아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사례별로 상세하게 안내한다. <청어람Life·1만3000원>

백성을 평화롭게 하는 정치, 그 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정조 책문, 새로운 국가를 묻다

정조 지음

조선 제22대 왕 정조. 그는 대표적인 개혁군주로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재위하는 동안 규장각을 설치해 학문을 장려하고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탕평책을 실시하여 당쟁에 구애받지 않고 인본과 실력 중심의 관리를 등용하는 등 대통령정책을 펼쳤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탕평, 대통합을 강조한다. 분열과 대립, 갈등의 낡은 정치



를 청산하고 지역 통합, 세대 통합,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정조 책문, 새로운 국가를 묻다”는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안정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지금, 현 대통령을 향한 정조의 78가지 정책 질문을 담은 책이다.

‘책문’은 왕이 신하와 유생들에게 나라의 정책과 나아갈 방향에 관해 연구와 대책을 주문한 사료(史料)로, 이 책은 정

조의 문집인 ‘홍재전서’ 제48권~제52권에 실린 78가지 책문 전체를 현대적 관점으로 풀어냈다. 인문 고전의 대중화에 힘써온 신창호 교수가 정조의 책문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최초의 단행본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사회는 양반만이 과거를 통해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고, 노론과 소론의 당파에 따른 당쟁이 극심한 시기였다. 하지만 정조는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를 갈망해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했고,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인본과 실력 중심의 관리를 등용하는 대통령정책을 펼쳤다.

각 책문은 한국의 병폐와 관리의 폭정

을 막고 나라의 균형발전을 꾀하던 정조의 애민정신은 물론, 국가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노인을 공경하고, 절기를 따르는 풍습이 바르지 등에 대해서도 살피던 지도자의 세심한 마음을 보여준다. 시와 음악 등의 예술, 천문 등의 과학에 관한 책문에서는 깊이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학자군주로서의 면모도 엿볼 수 있다.

“시대가 달라지더라도 삶의 원리와 원칙, 본질과 근원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정조의 책문은 그런 역할을 자임한다. 정조가 책문으로 남긴 만민의, 민주주의 시대정신에 근거한 깊은 성찰과 열망이 있기를 소망한다.” <신창호> <판미동·1만6500원> /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미카엘라 : 달빛 드레스 도난 사건=국내 최초로 초등 고학년 여자아이 타깃의 걸스 픽션을 공모한 No. 1 마시멜로 픽션 수상작. ‘미카엘라’는 200년 전통의 ‘브링턴 아카데미’ 기숙 학교를 배경으로, 전설의 보물을 찾아 ‘두꺼비잡기 대회’에 참가한 7학년생 미카엘라의 미션 레이스를 그린 작품이다. <고릴라박스·9500원>



▲인어 공주를 만난 소년=환상적인 그림과 서정적인 글로 사랑받아 온 나탈리민의 ‘소년’ 연작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 공주’를 전면에 등장시키며 편견 없는 믿음과 공감에 바탕한 우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소년과 인어 공주를 빨강과 파랑으로 대비시켜 표현한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울랄라 가면 사용법=홍소풍 태백로 배달되는 요술 가면이라는 판타지적 설정을 자유분방하게 활용한 작품. 요즘 아이

들의 욕망과 고민을 현실성 있게 녹여 냈다. 이야기 속에 빠져들여 결말까지 한달음에 내달리는 동안, 자신의 속마음 혹은 자기도 모르고 있던 진짜 마음과 마주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임·9500원>
▲건방진 장루이와 68일=‘마당을 나온 암탉’ 작가 황선미가 들려주는 친구 관계, 그 찌릿한 갈등과 성장 이야기. 황선미가 어린이 주변을 둘러싼 인간관계를 동화로 쓰고, 이보연 아동심리 전문가가 상담을 덧붙인 신개념 관계 동화다. 한중공동개발 프로젝트로 진행된 양국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콜라·1만1000원>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정문앞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0만)
- ★ [건물] 북구 신원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룸 36개 5층건물 1층 커피전문점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 1천3백)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1중주거지역 슬로우 시티 옆 대지 3,041㎡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점 대지 1326㎡ 상가건물, 창고 적합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담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만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1~4층 대지 364.22㎡ 건물 827.74㎡ 매매 85억 (상담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경매 추천 물건

- ★ [근린주택] 광주 남구 서동 3층건물 대지261㎡ 건물 379.44㎡ 감정가 5억 3천3백
- ★ [주택] 광주 동구 동명동 단층건물 토지 149㎡ 건물 68.85㎡ 감정가 9천6백
- ★ [다가구] 광주 동구 산수동 3층건물 토지 275.1㎡ 건물 480.58㎡ 감정가 4억4천7백
- ★ [다가구] 광주서구 화정동 4층건물 토지310.4㎡ 건물 518.63㎡ 감정가 7억8천5백 ▶ 최저가 5억5천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11.26㎡ 건물 23.68㎡ 감정가 2천8백3십만 ▶ 최저가 2천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식품공장, 창고용도 대지 3653㎡ 건물 3971.63㎡ 감정가 39억2천2백만 ▶ 최저가 27억4천5백
- ★ [농가시설]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문평산단인근) 대지 4683㎡ 건물 1599.8㎡ 감정가 3억2천1백만 ▶ 최저가 2억2천5백
- ★ [장례관련시설]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대지5153㎡ 건물 1798.58㎡ 감정가 17억8천8백만 ▶ 최저가 10억2백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